

여고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김 영 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여고생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부갈등과 초기부적응도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부부갈등이 초기부적응도식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여고생 2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부갈등은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도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를 매개하는 초기부적응도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부갈등은 초기부적응도식을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초기부적응도식은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초기부적응도식에 영향을 주고, 초기부적응도식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 여고생

[†] 교신저자 : 김영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 yh9848@yahoo.co.kr

Erikson(1963)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정체감 형성기(정체감 형성 대 혼란기)의 후기에 위치한다.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종종 자신의 지각과 생각에 대해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며 타인들의 의견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Cohen & Harnick, 1980; Goodman, Ruby, Bottoms, & Aman, 1990). 가장 가까운 타인인 부모나 어른들의 반복된 메시지가 주는 부정적 영향은 현실적인 지각을 방해하고 그러한 기억은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Lewis, 1995).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부갈등, 이혼, 경제적 문제, 부모의 정신 병리와 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있다(Emery, 1982; Rutter, 1979).

특히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Shred, McDonnell, Church, & Rowan, 1991; 이민식과 오경자, 2000에서 재인용)고 하였는데, 부부갈등이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며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로 정의된다(Strauss, 1979). Emery(1982)는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 불화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주요 스트레스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 사이에서 끼인 기분을 더 많이 느끼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하였다(Buchanan, Maccoby, & Dornbush, 1996).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간의 갈등에 노출될 때, 만성적으로 정서적 흥분 상태가 높아지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계정숙, 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부모와의 관계가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Filsinger & Lamke, 1983)고 하였다. 대인관계란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행동하는 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이다(Heider, 1964). 즉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에서 매우 상호의존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연계를 의미한다(Collins & Repinski, 1994). 생애 초기에 만들어지는 두 사람간의 관계, 즉 초기 대인관계는 양육자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밀접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후 직면하게 되는 여러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 대인관계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의철, 박영신, 199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대인관계에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채유경, 2004), 또한 가정 분위기가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연희, 2008).

부부갈등이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대해 Grych와 Fincham(1992)의 관점에서는 부모의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한 아동의 지각에 의해 매개된다고 하였다. 즉 실제로 심각한 부부갈등도 아동 입장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고 드물게 벌어지는 부부갈등도 아동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Fincham, Grych와 Osborne(1994)

의 연구에서도 실제 부모 갈등 정도보다 아동의 인지처리과정이 장기적인 적응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Grych와 Fincham(1990)의 인지-맥락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으로 설명되는데 이 모형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자녀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주고 대처방식의 결과가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 모형은 폭력 등 행동상의 문제로 나타나는 외현화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정서에 관한 설명은 없다.

Davies와 Cummings(1994)는 실제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녀는 강한 정서적, 생리적 반응을 보이고 이후 부부갈등맥락에서 더 심한 부정적 정서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정서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정서가 갈등 사건을 평가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서적 안정감 가설(emotional security hypothesis)라고 하는데 이 가설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에서 부부갈등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40%, 외현화 문제를 15%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는 10%-33%,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8%(권영옥, 이정덕, 1999; 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 이민식, 오경자, 20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잘 설명하는 인지-맥락적 모형과 내재화 문제를 잘 설명하는 정서적 안정감 가설은 인지 혹은 정서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 각각 강조하고 있으나 부모간의 언쟁,

가출, 신체적 싸움 등 부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오가는 복잡하고 갈등적인 상황에 놓인 아동의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될 수 있는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는 미흡하다.

가족의 분위기가 냉담하고 부정적이었다고 지각한다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신에 대한 도식들은 타인과의 대인관계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도식이 심각할수록 그에 따라 촉발되는 양상은 그가 겪은 가족 환경의 분위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격렬한 부부갈등을 느낀 아이는 슬픔을 느끼며 자신을 쓸모없고 또래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Sternberg, Lanb, Greenbaum, Cicchette, Dawud, Cortes, Krispin, & Lorey, 1993), Harvey와 Miller(1998)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을 떠날 지도 모른다는 도식을 가진 사람은 그 도식이 촉발되는 상황을 지각할 때마다 안정감 있는 대인관계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주요 타인이 떠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파생된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장애는 이후 성인기의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Silverman, Cerny, Nelles, & Burke, 1988).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과 같은 유해한 환경에 의해 경험되는 정서적 측면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및 평가 등 사과의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자기 및 타인 도식이 형성되고, 이 도식의 촉발에 의해 부적응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부모의 갈등 상황에서 자녀가 이것을 인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자녀의 대처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대처방식의 결과가 적응에 영향을 주거나(인지맥락적 모형), 정서가 갈등 사건을 평가하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내

적 역할을 한다(정서적 안정감 가설)는 설명처럼, 인지 혹은 정서가 각각 중요한 내적 역할을 한다기보다 인지와 정서의 상호작용 및 수반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인지치료자인 Young(1990, 1999)은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으로 개인에게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역기능적인 도식을 '초기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일생동안 반복되는 광범위하고 만연된 주제로서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발달하는데 이 시기 동안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유해한 경험이 그 원인이며,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외상적 경험과 비슷하다고 지각된 생활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다. 이것은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에게 해로웠던 이전 발달 시기의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Young, 1990, 1999; Young, Klosko, & Weishaar, 2003)고 정의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은 5개 영역(Young, et. al., 2003)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단절 및 거절 영역은 안전감, 안정감, 돌봄, 공감, 감정의 공유, 수용, 존중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는 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냉담하고 거절적이며 억제적이거나 폭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가족 기원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둘째,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은 타인으로부터 분리, 생존, 독립적인 기능,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잘못 지각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손상된 한계 영역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으며 타인과 현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어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한 가족 기원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넷째, 타인중심

성 영역은 타인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타인과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며 보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희생한 채 타인의 감정, 반응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동의 고유한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나 소망, 사회적 수용이나 지위가 중시되는 가족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 충동, 선택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엄격하게 내면화된 규칙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걱정이 저변에 깔려 있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Freeman(1999)은 Young(1990, 1999)의 도식 모델이 비합리적인 인지정보처리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 검토한 결과, 초기부적응도식이 약하게 드러날수록 개인의 대인관계 적응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Wright, Crawford, & Castillo, 2009)에서는 아동기 동안의 정서적 학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주는 데 이때 부적응적 도식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경(2008)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등학생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서적 학대나 부부갈등과 같은 어린시절의 유해한 환경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지각, 평가되고 해석되어 현재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reeman(1999)과 Wright 등(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인지 중심의 인

지-맥락적 모형과 정서를 중요하게 보는 정서적 안정감 가설로 부부갈등을 설명하는 연구들(Davies & Cummings, 1994; Grych & Fincham, 1990)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각된 부부갈등과 심리적 적응 또는 대인관계문제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써 부적응적 도식의 역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Parker, Barrett와 Hickie(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초기 성인기에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대인인식과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은혁기(2001)의 연구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정도가 높아졌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좀 더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자기 혹은 타인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성경(2008)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기통제감이 낮을 경우, 남학생은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여학생은 우울 및 불안이 높아지는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정서표현이 갈등적인 사람이 우울, 불안, 강박 경향이 심하여 정신신체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Katz & Campbell, 1994), 대인관계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상호작용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 왜곡된 대인지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고 하였다. 장정주와 김정모의 연구(2008)에서는 정서표현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좀 더 민감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고생이 지각한 부부갈등, 대인관계문제, 및 초기부적응도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고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담임교사들에게 설명하고 각 담임교사의 진행 하에 설문이 실시되었다. 배포된 300부의 설문지 중 설문 작성을 원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하고 285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부부갈등 척도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는 Grych와 Fincham(1992)이 개발한 것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권영옥과 이정덕(1997)의 연구에서 총 44문항 3점 척도(1점: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그렇다)로 타당화 하였다. 구성요인은 부부갈등의 빈도(부부갈등 노출 정도에 대한 지각), 강도(갈등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지각), 해결(갈

등 해결정도에 대한 지각), 내용(부부갈등의 내용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한 지각), 지각된 위협(갈등으로 인한 두려움), 대처효율성(부부갈등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처능력), 자기비난(부부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각) 및 삼각관계(부모사이에서 난처함 혹은 곤란함을 지각하는 정도) 등 8개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빈도 = .80, 강도 = .88, 해결 = .85, 내용 = .66, 지각된 위협 = .82, 대처효율성 = .76, 자기비난 = .75, 삼각관계 = .59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이다.

대인관계문제 척도

대인관계문제 검사(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ñor(1988)가 개발하고,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재구성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IIP를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등(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K-IIP)의 단축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로 만들어졌다. 하위 요인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김영환 등(200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통제지배 = .78, 자기중심성 = .79, 냉담 = .82, 사회적 억제 = .80, 비주장성 = .88, 과순응성 = .79, 자기희생 = .72, 과관여 = .78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이다.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Korean Schema Questionnaire: KSQ)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 YSQ, Young, 1990; 1991 개정)는

초기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205문항 6점 리커트 척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Schmidt, Joiner, Young과 Teich(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96이었으며 비임상표본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82로 나타났다. 조성호(2001)는 Young의 연구를 기초로 한국판 도식질문지를 제작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경험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국판 도식질문지에서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75-.95로 나타났고 석지은(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92-.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석지은(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식질문지를 초기부적응도식을 재는 데 사용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은 총 5개 영역(단절 및 거절 영역,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타인중심성 영역,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 손상된 한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0문항 6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 6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식 특징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단절 및 거절 영역 = .95,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 .89, 타인중심성 영역 = .87,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 = .88, 손상된 한계 영역 = .7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는 .97이다.

자료 처리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각 변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둘째,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여고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대인관계문제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지와 초기부적응도식이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결 과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의 기초 통계치와 상관관계

표 1은 각 변인들의 기초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인 간 상관을 먼저 살펴본 있는데 각 변인 간 전체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표 2). 부부갈등은 초

기부적응도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r=.30, p<.01$)을, 대인관계문제와도 유의미한 정적상관($r=.28, p<.01$)을 보였다.

표 3에서 각 요인들의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의 하위 요인인 '대처효율성'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20\sim r=.38, p<.01$)을 나타냈고, 부부갈등의 '내용'과 '대처효율성'은 초기부적응도식의 모든 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내용' 요인: $r=.12\sim r=.20, p<.01$, '대처효율성' 요인: $r=.20\sim r=.35, p<.01$). 한편 초기부적응도식의 5개 하위 요인(단절 및 거절 영역,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영역, 타인중심성 영역, 과잉경계 및 억제 영역, 그리고 손상된 한계 영역)은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상관($r=.31\sim r=.68, p<.01$)을 나타냈다.

표 1.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의 기초 통계치($n=285$)

| 변인 | 문항수 | 점수 범위 | M(SD) |
|---------|-----|---------|---------------|
| 부부갈등 | 44 | 46-112 | 79.02(15.54) |
| 초기부적응도식 | 90 | 102-453 | 225.48(61.67) |
| 대인관계문제 | 40 | 44-120 | 95.36(24.71) |

표 2.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의 전체 상관관계($n=285$)

| 변인 | 부부 갈등 | 초기부적응 도식 | 대인관계 문제 |
|---------|----------|-------------|------------|
| 부부갈등 | 1 | | |
| 초기부적응도식 | .30** | 1 | |
| 대인관계문제 | .28** | .81** | 1 |

** $p<.01$.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3단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세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보다 줄어들어야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며, 유의할 경우 부분매개효과

표 3. 부부갈등, 초기부적응도식,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 (n=285)

|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e1 | e2 | e3 | e4 | e5 | i1 | i2 | i3 | i4 | i5 | i6 | i7 | i8 | |
|----|-------------|-------------|-------------|-------------|-------------|-------------|-------------|-------------|-------------|-------------|-------------|-------------|-------------|-------------|-------------|-------------|-------------|-------------|-------------|-------------|----|--|
| m1 | 1 | | | | | | | | | | | | | | | | | | | | | |
| m2 | .77 (**) | 1 | | | | | | | | | | | | | | | | | | | | |
| m3 | .65 (**) | .56 (**) | 1 | | | | | | | | | | | | | | | | | | | |
| m4 | .19 (**) | .14 (*) | .03 | 1 | | | | | | | | | | | | | | | | | | |
| m5 | .45 (**) | .55 (**) | .40 (**) | .09 | 1 | | | | | | | | | | | | | | | | | |
| m6 | .37 (**) | .43 (**) | .47 (**) | .18 (**) | .50 (**) | 1 | | | | | | | | | | | | | | | | |
| m7 | .02 | .04 | -.04 | .61 (**) | .18 (**) | .07 | 1 | | | | | | | | | | | | | | | |
| m8 | .37 (**) | .40 (**) | .22 (**) | .18 (**) | .41 (**) | .16 (**) | .20 (**) | 1 | | | | | | | | | | | | | | |
| e1 | .18 (**) | .18 (**) | .22 (**) | .20 (**) | .23 (**) | .35 (**) | .08 | .16 (**) | 1 | | | | | | | | | | | | | |
| e2 | .17 (**) | .17 (**) | .18 (**) | .19 (**) | .24 (**) | .34 (**) | .05 | .16 (**) | .76 (**) | 1 | | | | | | | | | | | | |
| e3 | .16 (**) | .15 (*) | .16 (**) | .17 (**) | .20 (**) | .30 (**) | .06 | .21 (**) | .69 (**) | .72 (**) | 1 | | | | | | | | | | | |
| e4 | .13 (*) | .11 | .18 (**) | .12 (*) | .16 (**) | .26 (**) | .12 | .14 (*) | .73 (**) | .72 (**) | .72 (**) | 1 | | | | | | | | | | |
| e5 | .09 | .19 | .08 | .16 (**) | .19 (**) | .20 (**) | -.02 | .08 | .57 (**) | .60 (**) | .72 (**) | .64 (**) | 1 | | | | | | | | | |
| i1 | .15 (*) | .15 (*) | .17 (*) | .23 (**) | .21 (**) | .22 (**) | .16 (**) | .15 (*) | .56 (**) | .47 (**) | .51 (**) | .47 (**) | .54 (**) | 1 | | | | | | | | |
| i2 | .08 | .04 | .11 | .16 (**) | .08 (**) | .22 (**) | .06 | .10 | .50 (**) | .44 (**) | .34 (**) | .43 (**) | .36 (**) | .52 (**) | 1 | | | | | | | |
| i3 | .07 | .05 | .15 (**) | .04 | .11 (**) | .34 (**) | -.07 | .04 | .59 (**) | .53 (**) | .37 (**) | .52 (**) | .37 (**) | .37 (**) | .60 (**) | 1 | | | | | | |
| i4 | .11 | .11 | .11 | .03 (**) | .22 (**) | .38 (**) | -.06 | .11 | .62 (**) | .56 (**) | .48 (**) | .56 (**) | .40 (**) | .41 (**) | .52 (**) | .79 (**) | 1 | | | | | |
| i5 | .09 | .10 | .10 | .01 | .14 (*) | .34 (**) | -.03 | .09 | .54 (**) | .54 (**) | .48 (**) | .52 (**) | .31 (**) | .26 (**) | .43 (**) | .68 (**) | .74 (**) | 1 | | | | |
| i6 | .08 | .10 | .09 | .16 (**) | .14 (*) | .28 (**) | .05 | .09 | .55 (**) | .62 (**) | .68 (**) | .55 (**) | .49 (**) | .37 (**) | .35 (**) | .46 (**) | .54 (**) | .63 (**) | 1 | | | |
| i7 | .15 (**) | .18 (**) | .13 (*) | .18 (**) | .18 (**) | .28 (**) | .10 | .12 (*) | .50 (**) | .52 (**) | .67 (**) | .51 (**) | .54 (**) | .44 (**) | .21 (**) | .30 (**) | .43 (**) | .48 (**) | .75 (**) | 1 | | |
| i8 | .14 (*) | .12 (*) | .15 (*) | .15 (*) | .19 (**) | .20 (**) | .16 (**) | .22 (**) | .52 (**) | .49 (**) | .65 (**) | .47 (**) | .58 (**) | .74 (**) | .43 (**) | .24 (**) | .38 (**) | .29 (**) | .49 (**) | .54 (**) | 1 | |

주: m1=빈도, m2=강도, m3=해결, m4=내용, m5=위험, m6=대처효율성, m7=자기비난, m8=삼각관계(이상 부부갈등의 하위요인), e1=단절 및 거절, e2=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e3=타인중심성, e4=과잉경계 및 억제, e5=손상된 한계(이상 초기부적응도식의 영역별 하위요인), i1=통제지배, i2=자기중심성, i3=냉담, i4=사회적 억제, i5=비주장성, i6=과순응성, i7=자기희생, i8=과관여(이상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요인). *p<.05, **p<.01.

표 4.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n=285)

| 단 계 | 변 인 | B | SE B | β | R ² | F |
|----------------|----------------|------|------|---------|----------------|-----------|
| 1단계(독립→매개) | 부부갈등→초기부적응도식 | 1.19 | .23 | .30*** | .09 | 28.04*** |
| 2단계(독립→종속) | 부부갈등→대인관계문제 | .44 | .09 | .28*** | .09 | 23.85*** |
| 3단계(독립, 매개→종속) | 부부갈등→대인관계문제 | .06 | .06 | .04 | .65 | 262.70*** |
| | 초기부적응도식→대인관계문제 | .32 | .02 | .79*** | | |

*** $p < .001$.

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 결과는 표 4에서 볼 수 있다.

표 4에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보면, 우선 초기부적응도식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beta = .30, p < .001$)로 나타나 첫 번째 단계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수로 넣은 두 번째 단계에서 부부갈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28,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인 초기부적응도식을 추가하여 부부갈등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대인관계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은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beta = .79,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세 번째 단계를 충족시킨다. 이때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고($\beta = .28 > \beta = .04$), 부부갈등은 유의한 영향력($\beta = .04, ns$)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는 초기부적응도식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Sobel(1982) 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Sobel's T: $Z = 4.92, p <$

.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 여고 2학년 285명을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대인관계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고 여고생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부갈등은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부부갈등 하위요인 중 '대처효율성'은 대인관계문제의 8개 하위요인(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처효율성'은 부부갈등 상황 시 자녀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갈등에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대처효율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의견이 맞지 않으실 때 나는 일이 잘 되도록 돕지 못한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나는 부모님이 그만 하시도록 할 수가 없다’, ‘부모님이 다투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않으신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소향(1994)은 부모간의 갈등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고 자신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낮은 대처효율성)고 ‘생각’하는 자녀는 ‘불안’을 느끼고 갈등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 분노, 수치,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경험하는 당연한 감정-불안, 당황, 무력감 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는 것이다. 부부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다른 환경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 즉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모르는 대인상황에서 그때와 유사한 감정 패턴을 갖기 쉬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처효율성과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이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준다고 한 연구들(김효은, 2006; 이순옥, 김춘경, 2006; 홍주영, 도현심, 2002)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대인관계 문제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내용’차원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요인 중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차원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지각인데, 이러한 지각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지배-복종-순응의 특성과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안나(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경우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내용’ 요인은 대인관계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연구 대상의 연령, 즉 대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오는 차이인지 혹은 성차에서 기인된 결과인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부부갈등과 초기부적응도식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부부갈등의 하위 요인 중 ‘내용’ 요인과 ‘대처효율성’ 요인은 초기부적응도식의 5개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 손상된 한계)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부갈등의 ‘내용’ 요인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는 지각이 높을수록, ‘대처효율성’은 자신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나타나는데, 즉 부부갈등 상황에서 대처를 잘 못하고(대처효율성 요인), 자신과 관련되어 갈등이 일어났다(내용 요인)는 인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패턴이 부적응적 도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적응적인 도식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냉담하고 거절적이며 억제적이거나 폭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가족(단절 및 거절), 부모로부터 적절한 지도나 안내를 받지 못한 가족(손상된 한계), 아동의 고유한 욕구보다 부모의 욕구나 소망, 사회적 수용이나 지위가 중시되는 가족(타인중심성),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걱정이 저변에 깔려 있는 특성(과잉경계 및 억제) 및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신의 능력을 잘못 지각하게 만드는 특성(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부부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자녀에 관해 갈등이 생기는 상황, 즉 자녀의 학교 일,

학업, 일상생활, 훈육에 관해 부부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것은 단지 부부간의 일이 아니라 이를 관찰하는 자녀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간접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에게 인지적인 오류(개인화, 정서적 추론 등)와 비효율적인 대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한편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본 결과, 초기부적응도식은 부부갈등과 대인관계문제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에 의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부부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인관계문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자녀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부적응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 부적응 도식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갈등 자체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Young 등(2003)은 초기부적응도식이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와 ‘기억, 감정, 인지, 신체감각’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 상황에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평가와 그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 기억, 신체감각 등이 개인의 특정 도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유해한 경험은 개인의 생각, 느낌, 행동 및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에게 해로웠던 이전 발달 시기의 상황들을 다시 반복하는 패턴

을 이끌어 낸다는 도식적 접근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부부갈등과 같은 반복적인 유해한 경험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적응도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이 도식이 대인관계문제를 일으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간 갈등을 관찰한 자녀가 표면적으로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 않거나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갈등 관계속의 상호작용을 보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도식을 형성하게 되고 종종 이 도식의 부적응적인 특성은 현재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인관계문제에 좀 더 민감할 것(김성경, 2008; 은혁기, 2001; 장정주와 김정모, 2008)이라는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여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여학생들을 위한 상담은 현재 당면 문제와 더불어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간 갈등에 대한 여학생의 인지적·정서적 경험을 탐색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적응적 도식을 평가하여 과거와 현재의 상호 연관성을 자각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인지치료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와 정신역동적 관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인관계문제 질문지가 각각 그 이론적 배경 및 각 하위 요인의 구분과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관뿐 아니라 각 하위 요인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초기부적응도식이 대인관계문제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온 개인의 인지 도식이 현재의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미 형성된 도식을 채는 질문지와 현재의 대인관계문제를 채는 질문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여고생(전 학년 포함)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남학생과의 비교 분석이 없으므로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생을 포함한 청소년기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자신의 원 부모에 대한 지각된 부부 갈등과 함께 자기 자신의 부부 갈등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 이때 개인의 초기부적응도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좀 더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연구대상인 여고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 목적을 담임교사들에게 설명하고 설문 수행 허락을 받은 후 담임교사의 진행하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자녀의 연구 참여 동의를 허락받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는 연구자의 짧은 생각에서 기인된 연구절차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복지학회, 18(1), 65-80.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4.
- 김성경 (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소향 (1994). 부부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환, 진유경, 조용래, 권정혜, 홍상환, 박은영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타당화: KIIP-C와 KIIP-PD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391-411.
- 김의철, 박영신 (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96-126.
- 김혜경 (2008).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은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연희 (2008).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청소년의 자아 분화와 청소년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

- 향: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12(1), 1-13.
- 은혁기 (2001).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에 관한 연구: 학령별·성별 차이와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9, 136-157.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순옥, 김춘경 (2006).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0), 101-108.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안나 (2008). 부부갈등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125-136.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37-548.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273-30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uchanan, C. K., Maccoby, E. E., & Dornbush, S. M. (1996). *Adolescent after divorc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R. I., & Harnick, A. H. (1980). The susceptibility of child witnesses to suggestion. *Law and Human Behavior*, 4, 201-210.
- Collins, W., & Repinski, D.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ayor, G. Adams, and T. Gullotta(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pp.7-36). CA: Sage.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1989).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321-328.
- Emmons, R. A., & Colby, P.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ilsinger, E. E., & Lamke, L. K. (1983). The lineage transmissio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75-80.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reeman, N. (1999).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issertations Abstracts International*, 59, 9B.
- Goodman, G. S., Ruby, L., Bottoms, B., & Aman, C. (1990). Children's concerns and memory: Issues of ecological validity in the study of children's eyewitness testimony. In R. Fivush & J. A. Hudson(Eds.), *Knowing and remembering in young children* (pp.249-284).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ren Development*, 63, 558-572.
- Harvey, J. H., & Miller, E. D. (1998). Toward a psychology of loss. *Psychological Science*, 9, 429-434.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A. A., Ureno, G., & Villasenor, V.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 Lewis, M. (1995). Memory and psychoanalysis: A new look at infantile amnesia and transferenc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4), 405-417.
- Parker, G., Barrett, B., & Hickie, I. (1992). From na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877-880.
- Rutter, M. (1979). Maternal deprivation, 1972-1978: New findings, new concepts, new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50, 283-305.
- Schmidt, N. B., Joiner, J.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321.
- Shred, R., McDonnell, P. M., Church, G., & Rowan, J. (1991). *Infants cognition and emotional*

- responses to adult's angry behavior.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Silverman, W. K., Cerny, J. A., Nelles, W. B., & Burke, A. E. (1988).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of parents with anxie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7, 675-827.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ternberg, K. J., Lanb, M. E., Greenbaum, C., Cicchette, D., Dawud, S., Cortes, R. M., Krispin, O., & Lorey, F.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Straus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Wright, M. O., Crawford, E., & Castillo, D.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 59-68.
-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 Unpublished manuscript.
-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rev.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Guilford Press.
- 1 차원고접수 : 2009. 9. 4.
심사통과접수 : 2009. 12. 8.
최종원고접수 : 2009. 12. 27.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 recognized by high school aged girls**

Young-hye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of marital conflict to EMS that as a major variable affects interpersonal problems of high school aged girls and surveys specific details of how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marital conflict influences their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s. I polled 285 high school girls in Gyeonggido to this end. Parental conflicts seemed to hold proportionately significant relation to EMS and interpersonal problems when the relation of marital conflict, EMS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analyzed. The relation of EMS to interpersonal problems as well showed significantly proportional 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EMS as a mediating factor for marital conflic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result shows that marital conflicts d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rpersonal problems via EMS as a mediating factor, and that EMS ful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s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at is, marital conflicts do affect EMS, which also affects interpersonal problem as a mediating factor.

Key words : Early Maladaptive Schema, Marital Conflict, Interpersonal Problems, High school aged girl